



##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분석\*

송 은(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임동선(이화여자대학교언어병리학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중학교 2학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사용능력과 부모와 대화 시 모국어 사용 정도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 간 심리적 적응, 문화적 적응,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수집한 1-9차년도 종단연구 데이터 중 5차년도(2015년)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1286명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모국어 사용 정도를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국어 능력 및 모국어 사용정도가 높은 군집(군집1, 486명)과 한국어 능력이 높은 군집(군집2, 800명)으로 구분되었으며 두 군집간 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모국어 사용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군집 간 심리적 적응, 문화적 적응,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군집1이 군집2에 비해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이중문화수용성, 학업적응,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중언어 환경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학교생활적응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다문화가정에 이중언어 환경의 중요성 및 부모-자녀와의 대화에서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다문화청소년패널, 중학교 2학년 다문화 청소년,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다문화수용성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274).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whiteun00@naver.com)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sunyim@gmail.com)

## I. 서론

2000년대 중반부터 상업적 결혼중개를 통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는 최근 3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해 2019년에는 13만 명을 넘어섰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이 중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연령이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6).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학업 수준이 떨어지고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정해숙 외, 2016),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양계민 외, 2012).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정 연구 초창기에는 결혼이주인 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적응(안혜진, 2019; 이상노, 이현심, 2014)이나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을 완성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하는 발달과업 단계상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이러한 이유로 중학교 전환기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Barber & Olsen, 2004; Gutman & Midgley, 2000; Kellam, Rebok, Ialongo, & Mayer, 1994; Nelemans, et al., 2018), 특히 중학교 2학년은 중 2병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변화가 급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중학생이 되면서 겪게 되는 전환점은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인생전환이 아니라 일부 청소년에게는 개발의 잠재적 출발점이 된다. Nelemans, et al.(2018)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소년이 불안이 높거나 혹은 안정적인 상태로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유지되는 것에 반해, 일부 청소년은 중학교 전환기를 맞아 불안감이 크게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등 어떤 전환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중학생이 되면서 맞게 되는 전환점은 일부 청소년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불안의 발달궤적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적인 불안의 발달궤적에는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 혹은 유년기에 비해 정서적 지지가 없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중학교 전환점은 전 생애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자녀가 청소년기, 즉 중학교 전환점을 맞이할 때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부모-자녀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녀의 정서적인 측면 및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은선경, 2010;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가정 내 언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중언어의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언어 아동은 언어가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아동의 모국어와 다른 곳에서 거주함으로 인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두 언어에 노출되는 아동을 의미한다(Lambert, 1977). 언어는 모든 사회에서 특히,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가 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은 스스로 언어에 대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동기부여, 본인의 사회문화경험, 혹은 불안감의 영향을 받는다(Lasagabaster, 2005). 이러한 언어에 대한 태도는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동기 유지를 위한 일종의 정서적 지원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두 언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는 제1, 제2 언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치와 언어의 사용 정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Genesee, Paradis, & Crago, 2004; Jones, 1972) 주로 동남아 개도국 출신 어머니로 이루어진 한국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어가 어머니의 언어 즉, 모국어보다 우세한 위치를 갖게 된다. 이처럼 제1 언어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제2 언어에 비해 낮을 때 대부분의 경우 모국어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모의 동기부여 측면을 보면 한국 결혼이민자 가정 어머니는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한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부모의 모국어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은, 2006; 권순희, 2009). 고은(2006)에 따르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모국어 습득에 부모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문화 및 이민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국어에 대한 가치 기준과 경험적 의미를 알아본 결과, 대상자들은 아동의 모국어를 현지어로 보며 자녀가 현지어를 배우는데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 다시 말해, 주 양육자인 부모를 통해 소통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보는 학계의 정의와는 달리 이들은 모국어를 자녀가 살면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로 보았으며, 본인의 모국어보다는 한국어 사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결과, 이중언어 환경은 아동에게 많은 언어, 인지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다(Bialystok, 1991; Campbell & Sais, 1995). 이중언어 아동은 언어발달 초반에는 또래 아동과 비교할 때 언어능력이 지연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일언어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능력을 갖게 된다(Pearson, Fernández, Lewedeg, & Oller, 1997). 뿐만 아니라 동시적 이중언어(balanced bilingual) 즉, 두 가지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보이는 아동은 언어에 대한 인식 및 해석, 인지적 유연성, 추론 및 분류 기술, 구문,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같은 수많은 인지, 상위언어, 사회 언어적 영역에서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높은 능력을 보인다(Bialystok, 1991; Galambos & Hakuta, 1988; Kessler & Quinn, 1980). 또한, 유아기 초기부터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아동에게서 높은 상위언어 및 상위인지 기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mpbell & Sais, 1995; Díaz, Padilla, & Weathersby, 1991).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가 어머니 나라 언어로 소통할 때 부모의 삶과 문화를 알게 되고 본인의 배경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인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가족 요인은 청소년의 정서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개인 외적 변인이다(최지은, 신용주, 2013). 아동은 청소년이 되면서 진로 결정, 사회적 지지, 또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과 내면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이때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지지자 또는 상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유창한 모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면 본인의 가치관, 신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정서적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정책기반을 마련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17년 기준 전국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당 한 명 이상의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를 고용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또한, 언어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언어 상황에서 모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다양한 생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 포털에서는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중요도를 알리기 위해 15개 언어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민 여성이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기보다 오히려 다문화적 특성과 이중언어 환경에서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비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어떻게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기제를 발달시키는지, 이러한 적응기제가 학교생활적응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요인에는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자아탄력성이 있다.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역동적인 시기로 생물학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Slomkowski, Klein, & Mannuzza, 1995).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평가적 측면 즉,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청소년의 다른 정신건강 및 건강한 행동패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McGee & Williams, 2000; Khanlou, 2004). 때로 다양한 자존감의 개념은 사회적 맥락보다는 개인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점차 개인적 측면의 영향뿐 아니라 가족, 문화, 인종과 같은 환경적인 영향에 주목하게 되었다(Rumbaut, 1994). 캐나다의 다문화 도시의 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문화 및 사회적 지위, 능력에 대한 평가 및 반응도 관련이 있는 것이 나타나 다문화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존감 증진을 위해서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Khanlou, 2004).

국내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부모, 친구, 선생님, 이웃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또한,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이 존재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중요한 심리적 적응요인에는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융통성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Masten, 2001;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자아탄력성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적응기제라고 할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김우진 외, 2017). 이러한 자아탄력성을 소수민족 혹은 다문화 배경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수민족 청소년에게 민족정체성 교육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차별과 편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Tummala-Narra, 2007), 이은경과 이선희(2019)는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중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을 밝혔다. 즉, 자아탄력성이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청소년기에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심리적 적응기제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이중문화를 수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업, 또래,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언어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모경환(2015)에 따르면 언어능력은 단순히 그 언어를 얼마나 습득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역할을 넘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서적 안정 및 자아존중감 형성, 학업 및 교우관계와 같은 학교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탄력성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승경, 양계민, 2012; 우영경, 김은하, 2016). 또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적응기제는 개인의 속성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지원네트워크, 지역사회 문화적 신념과 가치에 대한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Clauss-Ehlers, 2004).

두 번째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적응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이중문화수용성과 다문화수용성이 있다.

이중문화수용성은 이중언어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적응유형으로, 부모가 속한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개방적인 의사소통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승경, 양계민, 2012), 김우진 외(2017)가 잠재모형을 활용하여 2012 ~

2015년도 다문화청소년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이중문화 수용성이 초기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언어적 환경의 다양성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적 적응과 관련한 변인으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문화 수용성이 있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것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민자 가정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agani & Robustelli, 2010). 다문화수용성이 발달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의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Pagani & Robustelli,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문화수용성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남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면 다문화수용성이 발달할 수 있음과(김현정, 이태상, 2015; 신윤진, 윤창영, 2010) 반대의 경우도 성립함(이윤정, 이정아, 2016; 장은화, 어주경, 2013)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나 교사의 태도가 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윤, 박은민, 2015).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적응과 이중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의 문화적 적응을 통해 원만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와 맺고 학습활동을 잘 수행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적응기제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이중언어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언어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및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언어능력 즉, 모국어 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결혼 이민자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그들의 이중언어 실력뿐 아니라 평소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언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상황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부모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의 양, 아동의 말에 대한 부모의 반응, 부모가 제공하는 언어적 자극의 양과 질이 아동의 언어 발달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Robert & Kaiser, 2011).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언어능력(모국어 능력), 어머니와 대화시 어머니 나라 언어(모국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고, 군집 간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적응과 학교생활적응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본인의 이중언어능력 및 외국 출신 어머니 나라 언어(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분류된 군집 간 문화적응(이중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심리적응(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 공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5차년도 중학교 2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추적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언어능력 및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문화적 적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비교적 이중언어 노출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는 높은 연령의 청소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선택하고자 하였으며, 6차년도부터는 학생의 한국어 실력에 대한 문항이 제외되었으므로 5차년도의 중학교 2학년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334명 중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출신 어머니를 둔 1286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은 남학생 633명(49.2%), 여학생 653(50.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일본 456명(35.5%), 필리핀 333명(25.9%), 조선족 중국인 246명(1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거주지역은 경인권 324명(25.2%), 경상권 299명(23.3%), 전라 및 제주권 255명(19.8%)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 특징

특징	N(%)
성별	
남	633(49.2%)
녀	653(50.8%)
어머니 출신 국가	
일본	456(35.5%)
베트남	333(25.9%)
조선족	246(19.1%)

지역	
경인	324(25.2%)
경상	299(23.3%)
전라, 제주	279(21.7%)
전체	1286

---

## 2. 연구도구

### 가. 청소년의 언어관련 변인

#### 1) 한국어 능력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별 본인이 지각하는 한국어 능력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못한다 ~ 4=매우 잘한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점수를 평균 낸 점수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 2)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언어능력(모국어 능력)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별 본인이 지각하는 언어능력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1=매우 못한다 ~ 4=매우 잘한다)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 출신인 대상의 데이터만 분석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언어능력을 다문화청소년의 모국어 능력이라고 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모국어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영역의 점수를 평균 낸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 3) 부모와 학생 간 의사소통 시 외국출신 어머니의 언어(모국어) 사용 정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학생 간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1=한국어로만, 2=한국어가 대부분이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 말 약간, 3=한국어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 말 반반, 4=한국어는 약간이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 말이 대부분, 5=외국인 부모님 나라 말로만, 6=기타, 7=잘 모르겠다)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 7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학생 간 대화 시 외국출신 어머니의 언어(모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 1) 자아탄력성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재인용하여 수정한 김지경 외(2010)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4문항(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Coopersmith가 개발하고 오전영(1981)이 번역하고 박난숙, 오경자(1992)가 재사용한 자아개념검사의 자아존중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총 4문항(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 다. 청소년의 문화적 적응

### 1) 이중문화수용성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충래, 홍진주(2006)의 한국 및 몽고문화태도 평가 척도를 발췌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4로 나타났다.

### 2)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계민, 정진경(2008)을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의 다문화 수용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5문항(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 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 1) 교우관계

다문화청소년의 교우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화실(2009, 재인용)을 수정·보완한 김지경(2010)의 교우관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5 문항(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62로 나타났다.

### 2) 학습활동

다문화청소년의 학습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화실(2009, 재인용)을 수정·보완한 김지경(2010)의 학교적응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문항을 역채점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 3) 교사와의 관계

다문화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화실(2009, 재인용)을 수정·보완한 김지경(2010)의 학교적응 중 교사관계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5문항(나는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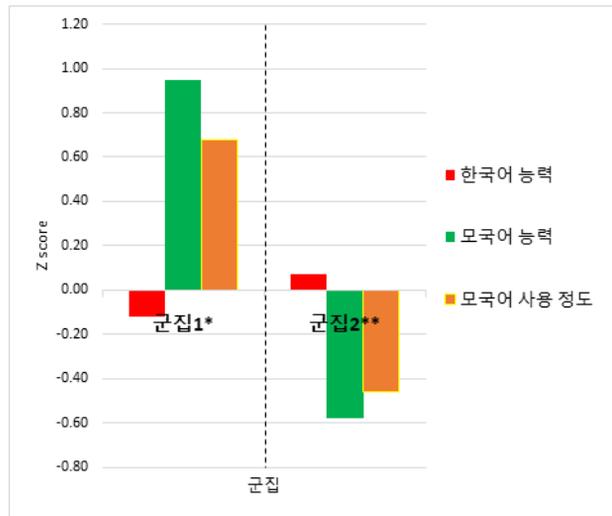
## 3. 자료분석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이중언어 능력(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는 표준화 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군집 간 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모국어 사용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집 간 심리적 적응(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문화적 적응(이중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학교생활 적응(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군집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본인의 한국어 능력, 외국 출신 어머니 나라 언어능력(모국어 능력), 부모와의 대화 시 외국 출신 어머니 나라 언어(모국어)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군집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개의 군집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군집 수를 2개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1은 486명, 군집2는 800명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군집 중심을 확인한 결과, 군집1은 모국어 능력(M=0.95, SD=0.82), 부모와의 대화 시 모국어 사용 정도(M=0.68, SD=1.14)가 군집2 (모국어 능력: M=-0.58, SD=0.57, 부모와의 대화 시 모국어 사용 정도: M=-0.46, SD=0.39)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2의 한국어 능력(M=0.07, SD=0.94)이 군집1(M=-0.12, SD=1.08) 대비 높게 나타났다(그림 1). 군집 중심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1은 ‘모국어 능력 및 사용 정도가 높은 군집’ 군집2는 ‘한국어 능력이 높은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모든 변수는 표준화 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 군집 1: 모국어 능력 및 사용 정도가 높은 군집

\*\* 군집 2: 한국어 능력이 높은 군집

[그림 1] 군집분석 결과

투입된 변수의 군집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두 군집 간 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모국어 사용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투입변수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군집간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군집1(n=486)	군집2(n=800)	<i>t</i>
군집투입변수	M(SD)	M(SD)	
한국어 능력	-0.12 (1.08)	0.07 (0.94)	3.14***
모국어 능력	0.95 (0.82)	-0.58 (0.57)	35.95**
부모와의 대화시 모국어 사용 정도	0.68 (1.14)	-0.46 (0.39)	21.27***

\*\**p* < .01. \*\*\**p* < .001.

한편,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모국어 능력만을 변수로 투입했을 때 군집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자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군집1은 316명, 군집2는 970명으로 분류되었다. 투입된 변수의 군집 간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군집1의 한국어 능력과(M=-1.62, SD=0.64) 군집2의 한국어능력(M=0.53, SD=0.23)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t=58.48$ ,  $p<.001$ ), 군집1의 모국어 능력과(M=0.63, SD=-0.20) 군집2의 모국어 능력(M=-0.20, SD=1.01)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28$ ,  $p>.05$ ). 즉, 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만으로 군집을 구분하는 것보다 모국어 사용 정도를 추가로 변수로 투입할 때 두 군집 간 구분이 잘 이루어졌다.

## 2. 군집간 심리적 적응(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의 차이

분류된 군집간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자아탄력성( $t=3.01$ ,  $p<.01$ )과 자아존중감( $t=1.98$   $p<.05$ ) 모두 군집1(자아탄력성: M=3.10, SD=0.42, 자아존중감: M=3.21, SD=0.53)이 군집2(자아탄력성: M=3.02, SD=0.47, 자아존중감: M=3.15, SD=0.53)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군집간 심리적 적응에 대한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군집1(n=486) M(SD)	군집2(n=800) M(SD)	<i>t</i>
자아탄력성	3.10 (.42)	3.02 (.47)	3.01**
자아존중감	3.21 (.53)	3.15 (.53)	1.98*

\**p* < .05. \*\**p* < .01.

### 3. 군집간 문화적 적응(이중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분류된 군집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과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이중문화수용성 ( $t=6.11, p<.001$ )은 군집1( $M=3.00, SD=0.38$ )이 군집2( $M=2.86, SD=0.38$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수용성에는 군집1( $M=3.17, SD=0.56$ )과 군집2( $M=3.12, SD=0.56$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41, p>.05$ ).

<표 4> 군집간 문화적 적응에 대한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군집1(n=486) M(SD)	군집2(n=800) M(SD)	<i>t</i>
이중문화수용성	3.00 (.38)	2.86 (.38)	6.11***
다문화수용성	3.17 (.56)	3.12 (.56)	1.41

\*\*\**p* < .001.

### 4. 군집간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학업, 교사와의 관계)의 차이

분류된 군집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학업( $t=3.22, p<.01$ )과 교사와의 관계는 ( $t=2.71, p<.01$ ) 모두 군집1(학업:  $M=2.92, SD=0.51$ , 교사와의 관계:  $M=3.14, SD=0.55$ )이 군집2(학업:  $M=2.82, SD=0.53$ , 교사와의 관계:  $M=3.06, SD=0.56$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우관계에서는 군집1( $M=3.20, SD=0.53$ )과 군집2( $M=3.17, SD=0.53$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07, p>.05$ ).

<표 5> 군집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기술통계 및 *t*-test 결과

	군집1(n=486)	군집2(n=800)	<i>t</i>
	M(SD)	M(SD)	
교우관계	3.20 (.53)	3.17 (.53)	1.07
학업	2.92 (.51)	2.82 (.53)	3.22**
교사와의 관계	3.14 (.55)	3.06 (.56)	2.71**

\*\*  $p <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외국 출신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중학교 2학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인식한 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부모와의 대화시 모국어 사용 정도를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군집 간 심리적 적응(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적 적응(이중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능력 혹은 모국어 능력 둘 중 하나의 변인만을 주로 사용하였고, 두 언어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실제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모국어 사용 정도를 분석한 연구 또한 드물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부모와의 대화 시 모국어 사용 정도를 변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1은 모국어 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가 높은 집단, 군집2 한국어 능력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구분에 투입한 변인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두 군집 간 한국어 능력, 모국어 능력, 모국어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두 군집 간에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투입한 군집 분류 변인이 적절했으며 성격이 다른 두 군집으로 잘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추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모국어 능력만을 변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구분된 두 군집간 한국어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모국어 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를 집단구분 변인으로 투입한 것이 적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미치는 이중언어환경

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중언어환경에 따른 두 잠재적 군집 간 심리적 적응, 문화적 적응, 학교생활적응 프로파일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속 변인으로 설정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과 관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집1은 군집2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언어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군집2에 비해 어머니와 모국어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할 수 있는 군집1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부모가 중요한 개인 외적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문화적 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집1은 군집2에 비해 이중문화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다문화수용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가 문화를 대변하는 척도와 같다는 선행연구(Van de Vijver, Helms Lorenz & Feltzer, 1999)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결과로, 외국출신 어머니가 본인이 편한 언어로 아동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외국출신 어머니가 모국어만큼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할 지라도 자녀와 자연스러운 문화적인 공감대까지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군집2에 비해 이중언어환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군집1이 자신의 배경이 되는 두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Pagani & Robustelli, 2010). 이중문화수용성과 비교할 때 다문화수용성은 자신의 배경이 되는 두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인종이나 다문화 청소년을 연구한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국가, 사회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다문화가정 청소년 또한 다문화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한 교과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개발을 위해 다문화수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Pagani & Robustelli, 2010).

마지막으로 두 군집 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집1은 군집2에 비해 학업생활, 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적응 정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교우관계적응의 경우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McCabe & Meller, 2004). 아동은 학령기 이후 학교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며 또래 및 교사와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교우관계의 경우 본인과는 다른 외모를 지녔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정청소년이 따돌림을 겪기도 하지만 스스로 위축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우관계향상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은희 & 이경옥, 2013), 이 또한 다문화수용성 증진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 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우관계 적응의 경우 다문화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아동의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로 군집을 구분하여 심리적 적응, 문화적 적응, 학교생활적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며, 교우관계적응과 다문화 수용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두 군집간 차이가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어 혹은 모국어 능력만을 변인으로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의 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를 모두 변인으로 사용하여 더욱 이중언어 상황에 가까운 군집이 단일언어 상황에 가까운 군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모국어 능력과 모국어 사용이 높은 경향이 있는 군집이 더 높은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성, 교사관계적응, 학업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이중언어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가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은 40.7%(2012년, 25.0%)로,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경향은 커지고 있으나, 배우자나 가족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한다는 응답은 36.0%로, 지난 3년간(2012년, 35.9%) 가족 내 모국어 사용 환경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숙 외, 2015).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의 인식개선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상 어머니의 언어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무엇보다 배우자 및 가족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황상심, 2016).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별로 기존에 실시된 문항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항목에 따라 검사 문항이 간단한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문항이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언어능력의 경우 객관적인 검사지표가 아닌 본인이 인식한 척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패널데이터는 2011년에서 2018년까지 수집된 종단 연구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종단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다면, 연구의 임상적 의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언어 환경이 아동에게 많은 언어, 인지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맥락에서 아동을 위한 균형 잡힌 이중언어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논란이 있다. 국가에서 일관된 언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 기능이 어떻게 확장 또는 제한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알기 위해 대상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교육 및 언어발달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성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및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밝혔다는 점에 임상적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은 (2006).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부모들이 갖는 모국어에 대한 가치 기준과 경험적 의미. **언어치료연구**, 15(3), 143-162.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중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167-194.
- 김지혜 (2012). 중고등학교령기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연구. **한국글로벌문화학회지**, 2(2), 72-100.
- 김현정, 이태상 (2015).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 479-498.
- 권순희 (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국어교육학연구**, 36, 195-228.
- 모경환, 이재분, 홍종명, 임정수 (2015).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및 언어교육 강화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8(3), 197-226.
- 박지윤, 박은민 (201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3), 233-251.
- 손운용,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 107-129.
- 송영복 (2010). 초등 다문화 학습자 대상 이중언어 교육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43, 247-275.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신윤진, 윤창영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적응, 또래관계 및 이중문화수용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4(2), 1-14.
-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789-807.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정소희, 이정미, 박선영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87.
- 우영경, 김은하 (2016).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능력이 적응유연성 및 문화정체

- 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9(3), 63-81.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윤정, 이정아 (2016).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3-91.
- 이은경, 이선희 (2019). 초등학교 4 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6), 1-13.
- 이은희, 이경옥 (2013).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2), 605-612.
- 이상노, 이현심 (2014).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9, 105-136.
- 장은화, 어주경 (2013). 아동의 자아개념 및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3), 289-305.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운정, 박건표, 동계연, 황정미, 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보고: 2016-03).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에서 2020년 1월 5일 인출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2), 199-210.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ber, B. K., & Olsen, J. A. (2004). Assessing the transitions to middle and high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1), 3-30.
- Bialystok, E. (2001). *Bilingualism in development: Language, literacy, and cogni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bell, R., & Sais, E. (1995). Accelerated metalinguistic(phonological)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1), 61-68.
- Clauss-Ehlers, C. S. (2004). A framework for school-based mental health promotion with bicultural Latino children: Building on strengths to promote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6(2), 26-33.
- Diaz, R. M., Padilla, K. A., & Weathersby, E. K. (1991). The effects of bilingualism on preschoolers' private speech.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3), 377-393.

- Galambos, S. J., & Hakuta, K. (1988). Subject-specific and task-specific characteristics of metalinguistic awareness in bilingual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9(2), 141-162.
- Genesee, F., Paradis, J., & Crago, M. B. (2004). *Dual language development & disorders: A handbook on bilingualism & second language learning, Vol. 11*.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 Gutman, L. M., & Midgley, C. (2000).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suppor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poor African American student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23-249.
- Jones, P. A. (1972). Home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verbal ability. *Child Development*, 43(3)1081-1086.
- Kellam, S. G., Rebok, G. W., Ialongo, N., & Mayer, L. S. (1994). The course and malleability of aggressive behavior from early first grade into middle school: Results of a developmental epidemiologically based preventive tria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2), 259-281.
- Kessler, C., & Quinn, M. E. (1980). *Positive effects of bilingualism on science problem-solving abilities. In Current issues in bilingual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Georgetown Round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hanlou, N. (2004). Influences on adolescent self esteem in multicultural Canadian secondary schools. *Public Health Nursing*, 21(5), 404-411.
- Lambert, W. E. (1977). The effects of bilingualism on the individual: Cognitive and sociocultural consequences. *Bilingualism: Psychological, Soci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15, 27.
- Lasagabaster, D. (2005). Attitudes towards Basque, Spanish and English: An analysis of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6(4), 296-316.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
- McGee, R. O. B., & Williams, S. (2000). Does low self-esteem predict health compromising behaviou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3(5), 569-582.
- Nelemans, S. A., Hale, W. W., Branje, S. J., Meeus, W. H., & Rudolph, K. D. (2018). Individual differences in anxiety trajectories from Grades 2 to 8:

- Impact of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0(4), 1487-1501.
- Pagani, C., & Robustelli, F. (2010). Young people,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61(2), 247-261.
- Paradis, J. (2007). Bilingual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heoretical and applied issues. *Applied Psycholinguistics*, 28(3), 551-564.
- Pearson, B. Z., Fernández, S. C., Lewedeg, V., & Oller, D. K. (1997). The relation of input factors to lexical learning by bilingual infants. *Applied Psycholinguistics*, 18(1), 41-58.
- Rumbaut, R. G. (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748-794.
- Slomkowski, C., Klein, R. G., & Mannuzza, S. (1995). Is self-esteem an important outcome in hyperactiv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3), 303-315.
- Tummala-Narra, P. (2007). Conceptualizing trauma and resilience across diverse contexts: A mult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4(1-2), 33-53.
- Van de Vijver, F. J., Helms Lorenz, M., & Feltzer, M. J. (1999). Acculturation and cognitive performance of migrant children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4(3), 149-162.
- Van Ryzin, M. J., Stormshak, E. A., & Dishion, T. J. (2012). Engaging parents in the family check-up in middle school: Longitudinal effects on family conflict and problem behavior through the high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6), 627-633.

논문 접수: 2020년 3월 26일

논문 심사: 2020년 5월 28일

게재 승인: 2020년 6월 8일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Clusterings According to Bilingual Abilities and the Amount of Mother Language Usage of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Eun Song(Ewha Womans University)

Dongsun Yim(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cultural and school adaptation between clusters divided according to bilingual abilities and the amount of mother language usag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total of 1286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from fifth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Variable clustering with bilingual abilities and the amount of mother language usage split up the whole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Self esteem, ego resilience, bicultural acceptanc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chool adaptation were compared between two clusters. All three of Korean ability, mother language ability, and the amount of mother language usag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cluster variables. All children divided two groups according to bilingual abilities and the amount of mother language us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Self- esteem, ego resiliency, bicultural acceptance, adaptation to learning and teacher relationshi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wo groups. The results highlight that the amount of mother language usage along with bilingual abilit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sychological, cultural and school adaptat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importance of parents training about bilingualism for multicultural families.

★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Mother language, Ego resiliency, Bicultural acceptance, Bilingualism